

포시즌호텔서울, 주중 '24시간 스테이크이션' 진행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서울은 '24시간 평일 한정 패키지'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패키지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 투숙상품으로 원하는 시간 또는 오후 3시 체크인해 최장 24시간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 20만 원 상당의 호텔 크레딧을 1박 당 1회 제공한다. 크레딧은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롯데월드, 자원 선순환 캠페인 '그린월드' 박차

“가로등 배너, 친환경 크로스백으로 재탄생”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 진행
임직원 참여 BYO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ESG경영 통해 지속가능 사회적 기업 발판 마련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필수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ESG 가치 추구에 전력을 쏟고 있다.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롯데월드(대표이사 최홍훈) 역시 '어 베테 월드(A Better World·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라는 핵심 슬로건을 바탕으로 친환경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파크 가로등 배너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크로스백을 소개하는 캐리커 모티와 로리. 그린월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이컵 대신 도입한 친환경 텀블러. 친환경 빨대 (위부터 시계방향).



롯데월드 어드벤처 파크 가로등 배너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크로스백을 소개하는 캐리커 모티와 로리. 그린월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이컵 대신 도입한 친환경 텀블러. 친환경 빨대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롯데월드

● 업사이클링 백 수익금, 전액 환경보호기금 적립

롯데월드는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 분야에서 자원 선순환 캠페인 '그린월드(Green World) 확대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9일, 롯데월드는 지난 봄 어드벤처 파크를 장식했던 가로등 배너를 재활용해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미니 크로스백을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개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 큐리리프와 협업한 프로젝트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수익금은 전액 환경보호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가로등 배너와 같은 현수막 폐기물은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수지에 유성 잉크로 출력하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는다. 자연 폐기과정에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롯데월드는 봄에 파크에서 컬러풀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가로등 배너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해 업사이클링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 수익금을 다시 환경보호 기금으로 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사용했던 가로등 배너를 모두 수거해 고유한 패턴과 컬러를 가진 부분을 찾아 상품 디자인에 맞게 재단해 크로스백을 제작했다. 제품마다 배너의 각기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 동일한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뿐인 크로스백이다. 세로 18cm, 가로 13cm로 휴대폰과 간단한 소지품을 들고 다닐 수 있게 제작했으며 3개의 수납공간을 갖춰 실용성을 높였다. 화려한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의상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29일까지 진행하며 미니 크로스백 단품과 4월 롯데월드가 파크에서 수거한 폐 PET로 제작한 친환경 필통과의 세트 두 가지로 진행한다.

● 생분해 빨대·중수 플랜트 친환경 활동

롯데월드의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월 테마파크에서 수거한 3만여 개의 폐PET로 업사이클링 친환경 필통을 만들고 이를 상품점에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다시 환경보호 기금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업사이클링 필통은 일반 필통 제작과 대비해 탄소 배출량 49%, 에너지 사용량 61%를 절감할 수 있다.

어드벤처 파크의 식음 매장에서 매립하면 100% 분해되는 친환경 빨대를 도입했다. 2022년까지 전 식음업장에 도입해 연간 소비량이 약 84만 개에 달하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빨대를 완전 퇴출할 계획이다. 상품판매점에도 생분해성 소핑봉투를 도입해 연간 약 1.9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롯데월드는 1989년 테마파크 오픈부터 지금까지 파크 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설비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로형 어트랙션(후물라이드, 아트란티스 등)이나 파크의 각종 오·폐수를 정화해 청소, 조경수, 냉동기 냉각수 등에 쓰는 중수로 재사용하는 중수 플랜트다.

롯데월드는 중수 플랜트 운영으로 연간 평균 30만 톤, 현재까지 약 1000만 톤의 물을 절약했다. 올해 1월에는 어트랙션 중 가장 많은 담수를 사용하는 '정글탐험보트'의 배수관로 개선을 통해 연간 4800톤을 더 재활용하게 됐다.

이밖에 직원들에게 텀블러를 지급하고 종이컵 사용 자제를 독려하는 BYO(Bring Your Own Tumbler) 캠페인과 구형 PC를 사회적 기업에 기증하는 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는 "단순히 기업의 단기적 이익이 아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롯데월드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na.com

고려대 자회사 휴니버스, 헬스허브와 맞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보급·확산 협력



이상현 휴니버스 대표(왼쪽)와 이병일 헬스허브 대표. 사진제공 고려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인 휴니버스(대표 이상현 의과대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데이터 서비스(Dicomlink) 기업 헬스허브와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앞으로 P-HIS의 성공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게 된다. 특히 P-HIS 보급·확산 서비스 모델과 P-HIS와 Dicomlink를 활용한 정밀의료플랫폼 사업과 등 다방면에 걸쳐 공동 사업을 진행한다.

휴니버스가 제공하는 P-HI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의료 솔루션이다. 환자의 진료정보, 건강검진 및 유전정보 등 각종 건강 관련 데이터를 클라우드 형태의 병원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해 개인 맞춤형 치료의 제공에 활용한다. 또한 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솔루션, IoT 기반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연구에 응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3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국내 최초로 P-HIS를 적용하고 100% 클라우드로 전환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7월 31일에는 고려대 구로병원에 클라우드로 전환해 오픈했다. 9월 고려대 안산병원에 적용하면 국내 30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이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를 통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G 전자담배 '릴', 해외진출 10개국 돌파 신형제품 '릴 솔리드 2.0' 주력...알바니아 등 출시



KT&G(사장 백복인)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 필연형 전자담배 '릴(iii)'을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에 처음 '릴'을 선보인 이후 1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KT&G와 PMI는 지난해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릴 솔리드 1.0'을 첫 출시했다. 이어 일본에는 '릴 하이브리드 2.0'을 출시했다.

올해는 신형 제품인 '릴 솔리드 2.0'을 주력으로 신규 시장을 공략 중이다. 기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에 해당 제품을 추가로 선보인 데 이어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북마케도니아 등 유럽 동남부와 중앙아시아로 해외 판로를 확대했다.

9일에는 열 번째로 알바니아에 '릴 솔리드 2.0' 및 전용스티크 '필(Fit)'을 출시하며 10개국 진출을 달성하게 됐다. '릴 솔리드 2.0'은 올 초 KT&G가 선보인 필연형 전자담배 2세대 모델이다.

스타벅스, 이동식 커피차 '브루잉 카' 운영

스타벅스가 자동차 브랜드 미니(MINI)와 협업한 '브루잉 카' 운영을 시작했다. 브루잉 카는 미니 신차에 스타벅스 매장과 동일한 커피 머신을 설치해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제공하는 이동식 커피차다. 고객 사연이 담긴 특별한 장소에 찾아가 색다른 추억과 감동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공모 받은 약 1000개의 사연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총 10곳의 의미 있는 장소를 최종 선정했다. 첫 일정으로 9일 국립경향병원을 방문해 200잔 분량의 음료와 라이스 칩을 전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 임상3상 돌입

식약처, 백신후보물질 GBP510 시험 계획 승인
연내 변이주 임상 수행...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개발 최종단계인 임상3상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과를 비교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 프랑스 발네바사의 백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해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월 식약처로부터 GBP510의 임상 1, 2상 시험승인을 받았다.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사람 80명에 대한 시험을 마쳤고, 현재는 240명을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임상 2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충분히 보여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을 보였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승인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임상 3상에 돌입해 국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비교임상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향후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GBP510의 임상 3상 전체 대상자는 18세 이상 3990명

이며 국내와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다. 임상 3상에서는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지 평가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을 개발한 기술로 연내 변이주 항원을 활용한 임상도 수행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에 임상 중간 분석 결과를 도출해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상반기에 백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돌입이 알려지면서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전일 대비 29.68% 급등한 3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거래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으며 장중 한때 가격제한폭인 29.89%까지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10일 종가 기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23조648억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16위(우선주 제외)로 SK이노베이션(22조 4229억원), LG생활건강(22조 3809억원) 등을 제치고 20위권에 진입했다.

김재범 기자